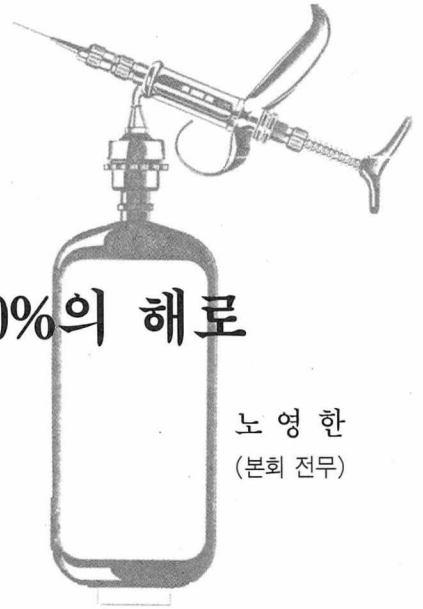




## 1999년을 돈콜레라 백신접종 100%의 해로



노영한  
(본회 전무)

**우**리는 금년 한 해를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2000년부터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한 해이기 때문이다.

우선 Y2K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어제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소위 클린턴 라운드를 제창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제 2000년 개방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는 흔히 낭비·퇴폐·향락의 대명사로 주지육림(酒池肉林)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2000년대가 되면 고기(肉)의 대표인 쇠고기 시장이 관세 40%로 개방되어 고기 소비가 흥청망청 될 수도 있다. 외국의 쇠고기 가격이 우리와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소주의 세금을 대폭 올리고 위스키의 세율은 내려서, 이제 소주에서 위스키

로 소비도 변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큰 돈 안들이고도 주지육림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흥청망청 생활하다 IMF 환란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값 싸진 위스키나 수입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예전과는 소비형태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2천년을 앞두고 양돈업계가 해야 할 일 중에 금년내로 전 두수(100%) 모든 돼지가 돈콜레라 백신을 맞는 일이다.

물론 백신접종은 수의과학검역원이 권장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확히 접종하여야 한다.

양돈농가가 이 일을 못한다면 한국의 양돈업이 선진화 되기는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철통같이 막혀 있어 내부적으로만 잘하면 국제방역은 유럽의 여러 나라보다 수월하다.

백신접종은 수의과학검역원과 우리 협회와 축협에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도 축장에서도 백신접종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었는데, 이 일에도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둘째는, 돈콜레라 박멸을 위해서는 많은 양돈선진국이 박멸에 성공한 사례가 있고, 일본이 박멸을 공식 선포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 있으면 성공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개방화 시대에 돼지고기 및 그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최종 판매자가 누가 될 것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정부가 다행히 유통구조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니 큰 기대를 가져보지만, 이들이 국산을 판매하느냐 수입육을 판매하느냐에 따라 양돈산업의 사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싼 제품을 수입·판매할 것이고, 생산자 단체의 직매점이나 이와 연관된 기업이 판매하면 국산 축산물의 소비 기반이 굳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근자 미국의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을 없애고 자유스럽게 모든 점포가 수입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특히 대형 할인매장이 국내에 상륙하고 국내 제별기업들이 대형 할인매장을 개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들 매장들은 수입수요와 직접 연관되기 마련이다.

특히 이들은 냉장 수입육 판매에 앞장서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산의 최대 장점이었던 냉장육 판매의 이점이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행히 바닥을 알 수 없이 추락하던 미국의 돼지 값이 최근들어 큰 폭으로 회복되고 있음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2천년을 앞두고 양돈업계가 해야 할 일 중에 금년대로 전 두수(100%) 모든 돼지가 돈콜레라 백신을 맞는 일이다.

물론 백신접종은 수의과학검역원이 권장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확히 접종하여야 한다.

양돈농가가 이 일을 못한다면 한국의 양돈업이 선진화 되기는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철통같이 막혀있어 내부적으로만 잘하면 국제방역은 유럽의 여러 나라보다 수월하다.

백신접종은 수의과학검역원과 우리 협회와 축협에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도축장에서도 백신접종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었는데, 이 일에도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미국처럼 양돈농가가 어려울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과 함께, 실업자에 대한 무료급식 등 많은 분야의 단체급식에서 돼지고기로 대체하여 소비를 늘리는 등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을 볼 때 부럽고, 이러한 사회적 구조와 분위기가 형성된 곳이 선진국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돼지값이 완전 회복된 것이 아니고 미국의 냉장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항상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에 대하여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2000년대에는 냉동육에서 냉장육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냉장육에서 가공제품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육 형태의 판매와 가공제품의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 특히 젊은 층들의 수요 변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만들기 위해서 자조금 제도가 금년 내로 입법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양돈**